면목이 없다

글 · **어수갑** eohsg@kdem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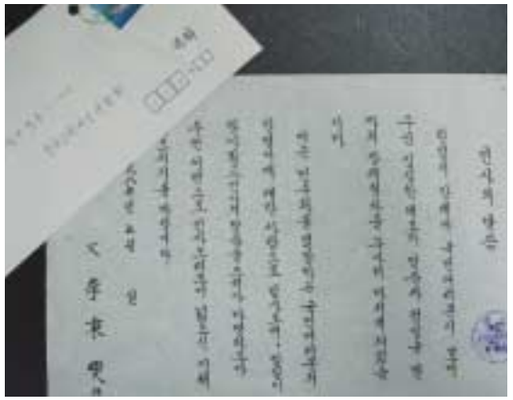
사료관에는 이한열과 관련한 500 여 건의 각종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이한열 열사가 소속되어 활동했던 동아리 '만화사랑'의 작품집인 〈만화사랑 제1집-고 이한열 열사 추모작품집〉

의인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짧은 세월 동안 완성에 도달한 그는 오래 산 것과 다름이 없다. 일찍 죽은 의인이 살아남은 악인들을 단죄하며, 젊은 나이에 죽은 의인이 오래 산 악인을 부끄럽게 만든다.' (지혜서 4장 7,13,16절)

얼마 전 있었던 '2009년 천주교 열사 합동 추모미사'에 동료들과 갔다가 받은 미사 안내지에 실려 있던 성서 문구다.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를 위한 위로와 희망의 말로 알아들으면서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느님,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명줄도 긴 그때의 악인들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때 숨죽이고 있던 자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이들을 폄훼하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사마천도 비슷한 심정을 피력했으니, 열전(列傳) 백이(伯夷) 편의 다음과 같은 글이 그것이다.

흔히 하늘은 사사롭지 않아서 언제나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질없는 말이다. 이 말대로라면 착한 사람은 잘 풀려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그런가. 어질기만 했던 백이와 숙제는 청렴고결하게 살다가 굶어죽었다. 70명 제자 중 공자가 가장 아끼고 칭찬했던 안연(顔淵)은 가난에 찌들어 쌀겨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하늘이 착한 사람 편을 들지 않는다면 이는 어찌된 까닭인가. 도척(盜拓)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간을 꺼내먹는 등 악행을 일삼았으나 제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덕을 쌓았던 말인가. 이런 예는 너무나 두드러진 것이지만, 이런 일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대체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한열의 아버지가 장례식을 마치고 각계에 보낸 인사 편지

비 내리는 늦은 저녁, 용산 철거민참사 현장 옆의 우중충한 비닐천막 안에는 스물 남짓한 사제들이 제대 주위에 서 있었으며, 지난 시기 민주화를 위한 제단에 목숨을 던진 이들의 유가족들과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거기 중간쯤에 이한열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도 보였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손주들 커가는 모습이나 보며 평탄한 여생을 보내실 그이가 노구를 이끌고 아직도 싸움의 최전선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하다니. 1987년 6월항쟁을 돌이킬 수 없는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데는 이한열의 죽음이 차지하는 자리가 작지 않았다. 그리고 6월항쟁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 나라가 독재의 길고도 치욕스런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 아니었던가.

이한열. 그는 광주항쟁의 흔적과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던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연세대에 입학하여 학교 집회에 참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청년

고 이한열 열사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오열하는 이한열의 누나 이세숙

의 순수한 감수성으로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과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1986년 2학기부터 실천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현실의 중심부에 뛰어들었고, '민족주의연구회'에서 시작하여 '만화사랑'이라는 동아리활동을 하며 자신의 인식과 실천을 벼리고 있었다.

1987년 6월 9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기로 한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대회'를 하루 앞두고 '6 · 10 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에 갑호비상령이 떨어진 가운데 이한열도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교문을 사이에 두고 '백골단'과 시위대가 공방을 나누며 충돌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이한열은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에 뒷머리를 피격당하여 쓰러졌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내일 시청에 가야하는데……"였다. 언젠가 그가 노트에 메모한 대로 '피로 얼룩진 땅, 차라리 내가 제물이 되어 최루탄 가스로 얼룩진 저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싶다'던 그는 사경을 헤매다 7월 5일 결국 사망하였다.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은 전국에 걸쳐 학생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6월 12일 '살인적 최루탄 난사에 대한 범연세인 규탄대회'를 최루탄과 다발탄 페퍼포그가 난사됨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평화시위로 치러졌고, 6월 18일 '최루탄 추방 국민대행진'에 이어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애도하는 가운데 민주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이한열 최루탄 피격 및 치사 사건은 이렇듯 6월항쟁을 승리로 변화시킬 임계점에로 끌어 올린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

추모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득,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저자 조세희 씨가 지난 1월 용산참사 현장을 다녀오며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내가 '난쏘공' 30주년이 된 지난해에 한 가지 말을 했어.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행복해하는 자는 다음 두 부류 중 하나다. 하나는 도둑이고, 하나는 바보다.' 난 지금도 그 말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도둑도 바보도, 의인도 악인도 아니라면 그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 곧 6월이다. 열사들이여,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글 · 사료 **어수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